

01 교회소식

새로운 시작~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와 교회 홈페이지 새 단장,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시상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사도 바울은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03 기획특집

“앞으로의 사역이 설렙니다”

새롭게 만민의 선교사로 임명된 에스토니아 집사의 근원 교회 그리고리 플레스프 목사와 미국 월드스킬센터미크 바잘레프 목사의 감사 사신

04 간증

구원의 섭리와 삶의 목적 깨달아

성결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주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몰도바 만민교회 바탈리 때버리누 선교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967호 2022년 5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교회 홈페이지 새 단장
www.manmi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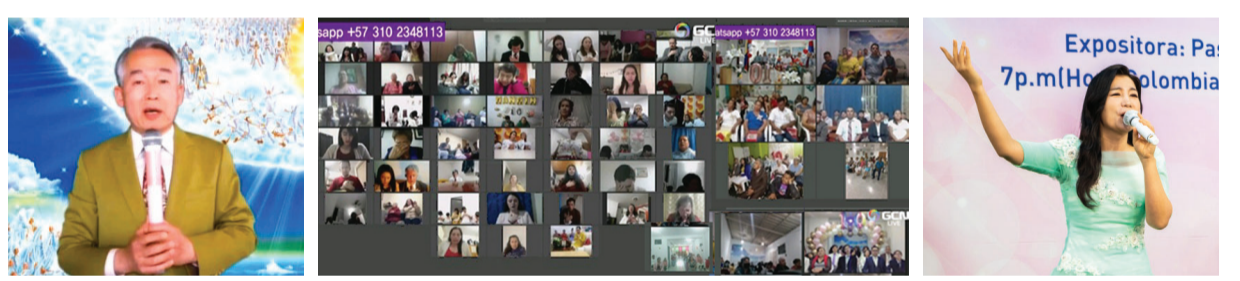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했다. 간결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로 재구성하여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 공식 SNS(페이스 북, 교회 블로그, 우림북 블로그, 유튜브)를 전면에 배치하고 자주 찾는 메뉴를 재배치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지난 4월 25일(월) 오전 9시(현지 시각 24일(주일) 오후 7시),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이미경 목사(교역자회 회장)를 강사로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랜선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온두라스 JBN TV(사장 에스테반 한달)를 통해 실시간 송출돼 콜롬비아 외에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파나마, 스페인, 미국, 캐나다 총 15개국에서 함께했다.

기념 예배는 장영연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승원 집사(예능위원회)의 특송 후 이미경 목사가 ‘금그릇’(딤후 2:20-2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그 뒤 이미경 목사가 은사 집회를 인도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줌으로 많은 성도가 시력이 회복되고 족저근막염,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를 통해 중남미 및 스페인어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치료와 응답,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지난 4월 24일 주일 저녁예배 때 진행된 시상식에서 총 82개 팀 가운데 국내 대상으로 2-2여선교회 임원 조장, 금상에 분당지성전, 은상에 중국 1교구 2지역, 동상에 여구역장총연합회가 수상했으며, 해외 대상으로는 콜롬비아 쏘가보소 만민교회, 금상에 말레이시아 만민교회 우셰메이 집사, 은상에 온두라스 만민교회 이시스빠스 자매, 동상에 말레이시아 만민교회 뎀띠시엔 집사가 수상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도 바울의 선(善)_1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린도전서 15:9~10)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옥에 가두기에 앞장섰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뜻에 찬성하며 그들의 옷을 지키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뤄, 가는 곳마다 권능의 역사를 크게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도 바울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

사도 바울은 의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써 상대를 누르기 좋아하고, 변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이 도무지 자기 의에는 맞지 않았지요.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었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의가 강하지만 한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임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자 바울에게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시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원정을 가던 바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는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인 사울을 부르며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의심하며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행 9:22).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2.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마치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 감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고난을 받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

쳤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파선의 위험 속에서 세월들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이다. 내가 예전에 것처럼 행했음에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를 영광스런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내 중심에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나이다. 파선하여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낼 때에도 내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가리어 주심에 감사하였으며 오히려 내게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기뻐할 수 있었나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지낸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내가 받았던 고통은 고통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통들이 내게는 더 채찍질이 되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나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도 못했지요. 깊은 감옥이나 파선의 위험, 매를 맞고 돌에 맞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스스로 서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많은 고통과 핍박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기고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지요. 더구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아 천국에 상급 쌓을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충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p> <p>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경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able>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p> <p>*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성하고 모든 것을 드리시기까지 헌신했으니 이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처럼 축복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으니 흑여 마음이 슬퍼지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처럼 충성하는데 아버지는 왜 지켜 주시지 않았을까?’ 하며 흑여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스스로 실망하여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분야에서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시험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사도 바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고난 받습니다”, “힘듭니다”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오직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지요.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뵈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참으로 곱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잠시 받는 고난을 장차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음껏 연단하실 수 있었고, 결국 바울은 큰 권능을 나타내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변치 아니하며,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Congratulations!

“만민의 선교사가 되어 행복합니다”

*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 교회)

* 마크 바잘레프 목사 (미국 월드성결센터)



주님의 이름으로 에스토니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제가 만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또한 만민의 사역을 통해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만민의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마음에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럽에 살면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에스토니아의 교회들과 저희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만민의 사역과 성결의 복음이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증거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정리되면 교회 집회나 세미나, 목회자 모임 등 이전처럼 활발한 사역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국 월드성결센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예지예정 가운데 저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사역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민과 함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희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 만민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앞으로의 사역이 설레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월드성결센터는 만민의 사역의 일부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센터라는 것을 더욱 느끼며,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결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성결의 분이 되신 당회장님의 삶과 겸손함을 보았고 제 삶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제 기도 속에 항상 당회장님과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만민이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지혜롭게 러시아어권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관리해 주는 손영락 장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 비탈리 따바라누 선교사**
(몰도바 만민교회)

먼저 제 삶을 주관하시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제 의가 강해서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자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강박해졌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악 된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아갔지만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해요!”라는 가사가 나오면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형 알렉산드르 따바라누가 저를 부르더니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형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었고 그런 형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도 저처럼 강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애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형의 모습에서 진실함을 보았고, 저도 형이 말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제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회장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동안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당회장의

설교는 뿌연 연기 와 같았던 제 신앙을 또렷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밤낮없이 하루에 몇 편씩 당회장의 설교를 듣고 요약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대해, 죄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얻으며 저는 죄를 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결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죄 가운데 살며 지옥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섭리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결의 복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몰도바에 만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몰도바 만민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다른 도시 레지나에도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율리아 성도의 직장 동료의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저희는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복사해서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퇴원 후 자신의 집이 있는 레지나 시로 돌아가서 그 책을 집에 두었는데, 이웃에 사는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십자가의 도’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놀라면서 그 책을 꿈에서 본 적이 있으며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 저희에게 연락해 왔지요. 그 뒤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레지나 시를 방문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그 모임이 활성화 되어 인원이 늘면서 저는 매주 주일이면 그곳에 가서 예배와 기도를 함께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성결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MIS(만민국제신학교)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일하기 위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에 다녀

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와 ‘일곱 교회’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 ‘믿음의 분량’, ‘천국’ 등 다양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지요.

리투아니아 목회자 6명과 만남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셨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해답은 천국에 가서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와서 욥의 연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선악과를 두신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큰 깨우침이 됐다며 매우 기뻐했고, 저는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결의 복음을 루마니아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목회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도’ 책을 전달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목회자들과도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당회장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어 받으신 성결의 복음을 저희는 쉽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만민의 성도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만민의 선교사로서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데 생명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